

미제가 기획한 조선침략전쟁과 범죄

조국해방전쟁

[기록영화]조국해방전쟁 제1부

<https://www.youtube.com/watch?v=iDjA7lqk9SA>

여기는 조선의 판문점입니다. 판문점에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한채의 집이 있습니다. 이집에서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15개추정 국가(실제로 모두 합치면 23개국) 무력까지 동원한 미제침략자들이 력사상 처음으로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의 도장을 찍 었습니다. 바로 이 집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해온 미제의 패배가 세상에 공포되 었습니다. 미제를 물리치고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오늘도 아니 먼 앞날에도 길이 빛날 것입니다.

《미제 침략자는 조선의 도발자》

1950년 6월 25일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괴뢰군을 내몰아 창건된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우리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 침공을 해왔습니다. 조선인민 앞에는 커다란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의 침략적 본성을 집중적으로 드러낸 가장 강도적인 전쟁이였습니다.

원사 교수박사 박시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전쟁에 관한 여러가지 공식문건들과 미국지배층들이 악정한 비밀자료들을 보면 미제국주의자들이 역사적으로 100여차례의 침략전쟁을 해왔지만은 조선전쟁처럼 그렇게 주도세밀하게 준비한 적은 일찍이 없 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면밀한 계획밑에 조선전쟁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제 2차 세계대전후의 정세로부터 이야기해야 할것입니다.》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 아시아에서는 군국주의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정사에 길이 빛날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고 조국으로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맞이 했을때 민족의 환호와 기쁨은 온 조선땅을 진감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의 기쁨으로 들끓는 조선인민에게 통일되고 부강한 새조국 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셨습니다

허나 이때 미국에서는 벌써 평화를 위협하는 심상치 않은 목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1945년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국회에 제출한 일반교서에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세계 재패론을 공공연히 선언했습니다.

2차대전시기에 무려 600억달러의 막대한 리윤을 얻어 비대해진 미제, 전후 제국주의의 두목으로 등장한 미제는 침략의 예봉을 아시아에 특히 조선에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미국무성 정보조사국이 작성한 비밀보고서는 다음같이 써어있었습니다.

《조선이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세아에 있어서의 지리적위치로 말미암아 조선과 그 인민들을 좌우하는것이 미국의 지위를 상당히 강화 하는 것으로 될것이다. 정치적으로 조선이 미국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성은 물론 의심할 바없다.》라고 써어있습니다.

미제는 조선땅을 오직 아시아를 침략하기 위한 전초기자로 지목했습니다. 놈들은 1945년 9월 8일 남조선땅에 기어들 었습니다.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보십시오

총 한방 쏘지않고 기어든 불청객이 해방자라는것입니다. 미군의 남조선 강점은 사실상 조선에서 새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서곡이였습니다.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하지는 악명높은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남조선의 유일한 정부는 오직 미군 최고지휘관의 명령에 의하여 수립된 군정이 있을 따름이다. 그 군정은 일본 군정을 대신한다.》

미제가 미군정을 선포하고 맨처음 벌려놓은 일이란 경찰들을 대대적으로 조직하고 늘인 것이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정이 가장 품을 들인것은 조선전쟁에 써먹을 미제 대포밥을 길러내는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른바 국군을 편성하는데 필요한 국방경비대와 대한경비대를 대대적으로 조직하는것이였습니다.

한편 미군정장관 아놀드 군경법령들을 연발하고는 응당 조선인민의 소유로 넘겨야할 일제의 재산과 군사기지들을 미제의 수중에 넣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차 넘쳐야할 남조선의 거리에는 새전쟁의 검은 구름이 떠돌기시작했습니다.

미제는 해방직후 남조선 각지에 조직된 인민위원회들을 강제 해산했으며 민주주의적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을 백색테러로 파괴했습니다.

미제는 남조선의 비참한 생활에는 전혀 아랑곳하지않고 모든것을 전쟁준비에 돌렸습니다. 미국의 손때 묻은 기자 마크 헤임까지도 《우리는 상륙한 첫날부터 조선인민의 적으로 행동했다》라고 썼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들고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단호히

항거해나섰습니다. 그리하여 이 투쟁은 1946년 10월 인민항쟁으로 확대되어갔습니다.

로골적인 군정정치가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히자 교활한 미제는 괴뢰정권을 세워 침략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했습니다. 놈들은 유엔의 거수기를 리용하여 유엔조선단을 만들어 1948년 1월에 남조선에 들여 보냈습니다.

남조서에 기어드는 《유엔 조선위원단》

그러나 미제가 발을 들여놓자 항의와 대결의 목소리는 온남조선땅에 차넘쳤습니다. 미제의 괴뢰정권조작의 길잡이로 기어든 이 꼭두각시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마침내 2.7 구국투쟁으로 번져갔습니다.

1948년 4월 평양에서는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 련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에 조성된 엄중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영향이 단합하여 미제의 단독선거음모를 분쇄케 하고 우리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남조선 전역에서는 애국적인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미제는 폭력과 협잡으로 저들의 침략도구인 괴뢰 정권을 조작했습니다.

미제는 이 정권이 그 무슨 독자성을 가진 정권인것처럼 보이기위해 거기에 분장도 시켜보고 화려한 의상도 입혀보았습니다

맥아더가 만사를 제껴 놓고 이 정권에 이른바 건국직전에 참가하러 온것도 그 하나의 좋은 실례로 될것입니다.

여기서 리승만이 북진통일을 고아뒀을때 분열된 귀국의 최대의 불행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할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심장한 축사를 했습니다.

미제의 조선침략야망은 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1866**년에 우리나라에 침입했던 미제의 해적선 샤만호와 관련한 사진자료들입니다. 농들은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102**년동안 우리조선을 시시탐탐 노려왔습니다.

전쟁을 하자면 더 많은 대포밥이 필요했습니다. 괴뢰군부 조작후 농들은 괴뢰군을 **50,000**명으로 부터 **1950**년 **6**월 까지 **100,000**명으로 늘이는 일에 먼저 달라붙었습니다. 미제의 발광적인 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여 **1948**년에 인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으며 괴뢰군안에 애국적장병들까지 이에 합세해 나섰습니다. 그러자 농들은 야수적인 탄압을 가했으며 미제는 저들의 북침계획을 반대하는 일체 요소들에 대해 가차없이 검거 투옥하고 학살했습니다. 이시기 미제의 로골적인 전쟁정책의 희생물이 되기를 거부한 남조선 국군장병들이 공화국 북방부으로 집단적으로 의거해왔습니다.

농들의 불안은 컸습니다. 미군부의 우두머리들은 북조선의 위력이 더 커지기 전에 제동을 가해야 한다고 미국방성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공화국의 견인력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괴뢰군 **1**개 대대의 병력을 거느리고 의거 입국한 당시의 대대장 강태문은 그때를 회상하며 말합니다.《저는 남반부에서 치욕스런 괴뢰군살이를 하다가 우리민족을 영원히 식민지 노예로 만들자는 미제 침략정책과 리승만 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인 괴뢰통치에 불만을 품고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1949**년 **5**월 **5**일에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는 공화국북반부로 뜻을 같이 하는 대대전원을 데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로 부터 수십년의 세월이 흘러갔으나 남반부 인민들과 애국적군인들의 거세찬 반미구국 투쟁을 유혈적으로 탄압하던 농들의 야수적만행을 지금도 잊을수 없습니다.

미국농들은 <한국>에 **1949**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전쟁준비를 더욱더 본격적으로 다그치기 위해서 괴뢰군에 대한 통치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남조선에 기여든 미군사 사절단농들은 괴뢰군 사단은 물론 연대와 대대에 이르기까지 각각 **10**여명의 고문들은 배치해놓고 훈련과 작전 모든 지휘권을 완전히 틀어쥐 었습니다. 그당시 괴뢰군은 미군사고문들의 지령이 없이는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침략전쟁훈련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미제는 괴뢰군병력을 대대적으로 늘이는 한편 방대한 예비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평유법을 만들어 도시와 농촌에 수많은 청장년들을 강제로 징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각종 무기들과 군사보급물자들을 넘겨주었습니다.

미제는 김포 수원 오산 원주를 비롯하여 여러 요충지에 군용비행장들을 건설했으며 인천-군산 목포를 비롯한 여러항구들을 해군기지로 전변시켰습니다. 미제의 조선 전쟁준비는 미군점령하에 일본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을 조선전쟁의 출격기지 보급기지로 써먹자는것으로부터 출발한것이 었습니다.

요코스카 사보로를 비롯하여 북은 흑가이도로 부터 남은 큐슈에 이르는 주요 전략지점들에는 해군기지들이 재건되거나 신설됐습니다. 또한 미 7함대에는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등이 증강되었습니다. 미제는 B-29 폭격기들이 상륙할수 있는 오키나와 공군기지를 비롯하여 많은 군용비행장들의 건설들을 다그쳤습니다. 미제의 이러한 행동은 국제협약에도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1945년 7월에 열렸던 포츠담회담 자료입니다. 이회의에서는 전후 일본의 처리 문제가 토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트루먼도 참가했습니다.

회담후 발표된 포츠담회담 선언에는 일본을 비군국화하며 전범자들을 엄격히 처벌할데 대한 일련의 문제들이 결정되었습니다. 미제는 국제공약을 리행하는듯이 극동군사재판을 벌려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첫째가는 전범자로서 응당 이 법정에 호출되어야 할 일본 천황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맥아더사령부에 초대되어 정중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또한 수급전범자들인 일본정부의 대신들과 군부의 두목들이 비호를 받았습니다. 미제의 비호아래 일본 수급전범들이 처단에서 면제되고 석방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반도 전쟁을 위한 병기창으로 전환되었으며 일본에서 조선전쟁을 위한 군수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제는 1948년 1949년에 심각한 경제공황에 부딪히자 조선전쟁 도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과잉생산으로 군수독점체들의 리윤은 급격히 감소됐습니다. 생산의 감퇴로 실업자는 600만으로 늘어났으며 그것은 백악관의 뒤통수를 호되게 후려 갈겼습니다. 뉴욕의 주식시장들은 일대 혼란을 빚어냈으며 사경에 처한 독점재벌들은 강심제를 요구하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백악관은 그들에게 조선전쟁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벤크리트도 《조선전쟁은 하나의 축복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1949년 가을부터 미국정계와 군부우두머리의 남조선 행각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에와있는 미국대사 무초의 삼팔도계선에 대한 이른바 시찰도 이 진지에서 저 진지로 분주히 이어졌습니다. 미공군대장 랜다와 미육군장관, 미국무성 극동정책위원회 위원장등이 꼬리를 물고 날아들 었습니다. 농들은 시찰단, 또는 친선방문의 명목으로 기여들었는데 그 모두가 제일 먼저 찾아간곳은 3.8선의 괴뢰군 진지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미 미제는 북침계획 작전도까지 작성해놓고 있었으며 괴뢰군을 사촉하여 과거 북반부지역에 대한 무장침입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했습니다. 농들은 사실 1949년에 전쟁을 일으킬 계획을 했으나 제농들의 기도가 실패하자 다음해로 연기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던 그때의 흔적들은 오늘도 력력히 남아있습니다. 당시 3.8경비대 중대장이었던 류성호는 그때를 회상하여 말합니다.

《그때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은 하루에도 수차례나 공화국 북반부를 침략하여 수많은 주민들을 학살하고 집들을 불태우는 귀족같은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농들은 분파선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으려고 4개월동안 달려들었습니다. 농들은 웅진에 전투사령부까지 설치하고 계속 증강된 병력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우리 경비대원들은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어 끝내 농들의 기도를 분쇄해버렸습니다.》

미제는 오늘 또다시 남조선에서 새전쟁을 도발하려고 대규모적인 전쟁연습 소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미제의 이러한 침략적도발행동은 무장침입도발에 광분했던 1949년 그때를 방불케합니다. 1949년 한해만 하더라도 도발 건수가 2617건, 매일 평균 8건에 달하는 이 범죄적통계의 수자들은 북침야욕에 날뛰 농들의 광증이 얼마나 절정에 달했는가를 잘말해주고있습니다. 미제는 오늘 또다시 남조선에서 새전쟁을 도발하려고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1950년 2월 중순 맥아더의 2번째 호출을 받고 리승만은 일본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들 사이의 비밀회담에서 리승만은 1950년 7월 이전에 전쟁을 일으킬데 대한 이른바 11개조 훈령을 받았습니다. 상전의 지시에 기세가 오른 리승만은 워싱턴에 있는 자기의 고문인 올리버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공격조치를 취하여야할 가장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 우리의 방어선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따라 강화될때 우리의 지위는 100프로 더 유리하게 될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브루조아신문들에는 《우리 군대는 북조선을 공격할 준비를 끝내고 워싱턴으로부터의 공격명령만을 기다린다》는 신성모의 고함소리가 계속 특필로 실렸습니다. 《1950년 6월 18일 미국방장관 존슨과 미합동참모본부의장 브래들리가 도쿄에 날아왔습니다. 그 이튿날 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궁성앞 광장에서는 맥아더가 미극동군의 대열병식을 벌여놓았습니다. 3만명의 보병과 다른 부대들이 참가한 이 대열병식 하루사이에 준비될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광장에서 일본 사무라이들이 태평양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요란한 열병식을 벌여놓고는 전쟁열을 올렸던것입니다. 침략전쟁을 앞두고 이런 열병식은 매우 큰 효과를 나타내군 했습니다. 후에 신통히도 조선전선에 투입된 미군사단들이 참가한 이 열병식도 사정은 같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트루만이 자기의 특사로 서울에 덜레스를 급히 파견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기 바쁘게 덜레스는 남조선에 있는 미군사고문 단원들과 국방장관 신성모를 비롯한 괴뢰군 고위급 참모성원들을 거느리고 3.8선 최전방 진지에 나왔습니다. 덜레스가 행차한 후에는 언제나 전쟁의 검은 구름이 떠돈다고 하여 그가 애호하는 손가방을 전쟁가방이라 불렀습니다.

그는(서울에 급히 파견된 덜레스) 3.8선 전호에서 맥아더가 미국회청문회에서 실토한것처럼 북쪽의 대비 대형은 중심방어형으로 남쪽 괴뢰군진지는 공격태세로 배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흡족해 하면서 제군의 큰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는 그리 오래지 않다고 전쟁개시 암시를 주었습니다.

다음날 덜레스는 괴뢰 국회에 나타나 당신들은 절대로 외롭지 않다면서 전쟁을 고취하는 연설을 했으며 그 이튿날에는 리승만과 다시 만나 북벌계획을 재검토하는등 매우 분방한 사흘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도 안심치 않아 서울을 떠나면서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 위대한 연극 가운데서 당신의 나라가 놀 결정적역활에 나는 매우 큰 의의를 부여한다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6월21일 덜레스는 도쿄에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맥아더 사령부에서 대기하고있던 존슨 맥아더 브래들리와 4인 밀담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전쟁도발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고 전쟁개시 날짜를 6월 25일로 정했습니다.

어째서 6.25일로 정했습니까. 미군사 고문 단장이었던 로버트가 잘 대답해주 었습니다. 《우리가 왜 25일을 택하게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심중한 의도가 있다. 25일은 일요일이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나 남조선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있다. 우리가 일요일에 전쟁을 개시했다는것을 믿을 사람은 아마도 없을것이다.》

이곳은 일본의 명승지 닛코입니다. 전쟁모의에 열이 오른 머리를 식히려 온 맥아더 사령부의 고급장교들은 25일 일요일 정오에야 여기에서 전쟁의 소식을 처음듣고 놀랜것 처럼 모두가 관광놀음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막뒤에서 미국 아리조나주 텍산시에있는 경랍고들에서는 비행기들이 포장을 벗기기 시작했으며 일본주둔 미공군에는 폭격기와 출격기들이 보충되었습니다. 맥아더 관할 비행기조종사들은 전투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38선의 괴뢰군의 모든 부대들에는 비상 경계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러나 6월 24일 토요일 이날 북방부 사람들의 생활은 여느때나 다름없이 평화로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보람찬 로동의 한주일을 보낸 사람들은 25일 일요일에 휴식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삼팔선의 모든 괴뢰군들은 전투태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도 농들은 6월24일밤 서울 장교부락에서 무도회를 벌여놓고 참가도 하지 않은 제 일선장교들이 여기서 긴장을 풀고 있는듯이 헛소문을 퍼뜨려 놓았습니다.

농들은 전쟁개시 몇시간 전에는 미군의 가족들을 인천항에 정박중인 노르웨이 선박 라인홀드호에 실어 몰래 일본으로 빼돌렸습니다. 닥고와 무도회의 이 놀음들은 조선전쟁도발자로서의 저들의 침략적 정책을 가리기위한 교활하고도 음흉한 술책들이었습니다.

1950년 6월25일 미제 침략자들은 마침내 리승만괴뢰군을 내몰아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했습니다.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전쟁을 가져다준 이 전쟁은 철두철미 미제에 의하여 계획되고 준비된 침략전쟁이 었습니다.

[기록영화2]조국해방전쟁 제2부

https://www.youtube.com/watch?v=jU81_yF6eEE

1950년 6월25일 오만무례한 미제 침략자들은 10여만의 대병력을 내몰아 삼팔선을 넘어 2km 계선까지 침공해 왔습니다.

미제 호전광들은 괴뢰 수단사단 17련대를 대탄과 벽성으로 올려 밀 였고, 괴뢰 1보병사단을 평천 금천 장풍방향으로 진입시켰으며, 괴뢰 7보병사단을 련천 금화계선으로 내몰았습니다. 전선동부에서는 괴뢰 6보병사단이 화천과 양구방향으로 침공해 들어왔고, 괴뢰 보병사단이 양양계선으로 미친듯이 덤벼들 었습니다.

바로 이날 워싱턴에서 촬영된 장면입니다. 조선전쟁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일으켜놓고도 교활한 트루맨은 자기가 마치 미주리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가 조선전쟁의 급보를 받고 급히 돌아오는것처럼 연극을 하면서 북조선이 침략을 했으니 이를 유엔에 제소하겠다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결국 도적이 매를 들 었습니다. 이날 오후 미제는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매수된 유엔사무총장 트뤼그베 리(노르웨이 사람)는 투루맨의 비밀지시로 미리 꾸며두 었던 이른바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떠넘기려고 날뛰 었습니다. 련이어 6월 27일에도 유엔은 미제의 조선에 대한 무력간섭을 허용하는 죄악을 또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른바 6월 27일 결정이라는 결의안이 있기 12시간 전부터 트루맨의 명령에 따라 맥아더는 미7함대와 일본주둔 미5공군을 조선으로 출동시켰습니다.

보십시오. 트루맨이 보낸 이 날강도들이 6월 26일 새벽부터 공화국 북부를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후 그토록 꽃피던 우리 인민의 행복의 요람이 전쟁의 화염속에 잠겼습니다.

이때 사태는 이만저만 엄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아직 요람기에 있 었고 인민군은 정규군으로 된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100여차례의 침략전쟁에서 소위 승리만을 자랑해오던 미제를 교주로 하던 반동연합세력과 맞서 싸운다는것은 실로 힘겨운 일이 아닐수 없 었습니다. 세계 선량한 사람들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 벌써 적들의 취약성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미제침략자들을 격멸 소탕할 결심을 내리시고 우리인민을 전쟁 승리에로 부르셨습니다.

이 준엄한 력사의 시각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6월 26일 방송을 통하여 미제침략자들을 소탕하기 위한 과업들을 밝혀주시고 전체 조선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의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참고 참아오던 우리 인민의 분노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인민군 연합부대들은 적들의 침공을 즉시 좌절시키기고 전 전선에서 총반격으로 넘어갔습니다. 평양을 비롯한 전국에 전시상태가 선포되고 온 나라가 하나의 강력한 전투진지로 전환되 었습니다.

청년들은 배움도 희망도 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바치기로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전쟁이 일어난지 단 며칠사이에만도 85만명의 청년학생들이 전선을 탄원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제가 대 병력을 증강하기 전에 높은 기동력과 연속적인 타격으로써 적의 기본집단을 짧은 시일안에 격멸 소탕하고 남반부를 해방할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 하셨습니다.

인민군 부대들은 두 타격을 전선서부로 향하고 적의기본집단을 서울지구에서 포위 격멸하기위한 첫작전에 진입했습니다. 남진의 이길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정의의 길이 었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길이 었습니다. 해방을 맞이한 남녘땅의 감격은 끝이 없 었고 그들을 구원한 인민군 전사들의 기쁨 또한 컸습니다. 인민군 부대들은 작전을 개시한지 단 2일만에 서부에서는 벌써 웅진 연안 개성을 해방했고 중부전선과 동부전선 부대들도 문산 춘천 강능 계선에 진출했습니다.

서울의 북쪽 관문인 의정부계선에 적방어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괴뢰 사단의 장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인민군 제3사 4사 보병들은 적들의 문산 개성에서의 방어선과 의정부에서의 방어선에서 완강한 저항을 무찌르고 드디어 6월27일 저녁에는 서울북쪽 교외에 진출했습니다. 어둠에 잠긴 서울거리에 력사의 새날이 밝아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도시의 파괴를 넘려하시여 날이 밝은 다음에 공격하라는 명령을 인민군부대들에 주셨습니다.

6월 28일 새벽 5시 서울 해방전투가 시작되 었습니다. 괴뢰군의 기본집단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을때 미제와 괴뢰두목들이 인민군대한테 쫓겨가면서 무슨 짓을 했는가 보십시오.

이것은 한강다리입니다. 적들은 얼마나 급해 맞았던지 제놈들의 패잔병 무리가 한참 건너가고 있을때 이 한강교를 폭파하여 무리죽음을 내였습니다. 후에 놈들이 줄여서 발표한데만 의하더라도 이때 죽은 놈들은 1000여명이 넘는다 합니다.《나부터 살고 볼 판이다》 적들은 바로 이런 놈들이였습니다. 인민군 부대들은 괴뢰군 6개사단과 수많은 헌병 경찰들로 꽂 들어찼던 원수의 아성을 작전 개새 단 3일만에 부셔버렸습니다. 이것은 세계 전쟁력사상 새로운 기록이였습니다.

6월 28일 서울은 해방됐습니다. 정의의 무력 강철의 인민군부대들이 당당히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서울이 생긴 이래 처음맞는 진정한 인민의 명절이였습니다. 종군작가들이 시민들과 해방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종군기자는 그때 안국동에 산다는 한주민은 인민군대는 어쩔 그렇게 용감하면서도 다정하고 인사성이 바르냐고 하면서 인민군대만 봐도 김일성장군님의 정치가 얼마나 좋은가하는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이제는 우리도 김일성장군님의 정치를 받으면서 사람답게 살게 됐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데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돌아갔습니다.

서울을 해방한 인민군부대들이 수원 평택방향으로 진격하고 있을때 도교에서 떠난 한대의 비행기가 수원에 날아왔습니다. 미국동부 사령관 맥아더 입니다.

영등포에 나와본 맥아더는 기가 막혔습니다. 당황망조한 맥아더는 황급히 워싱턴에 지급전보를 날렸습니다.

《한국군은 완전히 혼란, 전투의욕 완전상실, 그들이 주도권을 전다는 것은 불가능》 맥아더는 일본주둔 미침략군 사단들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조선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주둔 미24보병사단의 스미스특공대가 조선으로 떠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첫 지상부대인 스미스 특공대는 7월 5일 오산 계선에 쓸어들었습니다. 오산은 미제가 정말 오산한 고장이였습니다. 스미스특공대는 불과 2시간만에 이름도 모를 조선의 골짜기에서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미제의 첫 지상부대의 운명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편 주문진 앞바다에서도 미제는 된매를 맞았습니다. 인민군 해군의 자그마한 어뢰정이 움직이는 섬이라고 우쭐거리는 17000 톤급의 순항함을 동해바다 속에 처박았습니다.《어뢰정으로 순항함 격침,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기적이다》세계해전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1950년 7월 7일 유엔에 나타난 미국 대표는 소련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기회를 리용하여 반대파 사람들을 내쫓는 란동까지 부리면서 이른바 유엔군을 조작하여 조선에 보낼데에 대한 비법적인 결정을 날조해냈습니다. 이어 트루먼은 예비역 장교들에게까지 나타나 열을 올리면서 맥아더에게 더 많은 고용병들을 보내주려고 미국의 군사종업원들을 몰아쳤습니다. 한편 미제는 살인장군 맥아더를 유엔군 사령관으로 올려 놓으면서 조선전쟁을 더욱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악명높은 악마의 대사단이라고 하는 미1해병사단이 조선을 향해 워싱턴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영국수상 애틀리는 미제와 손발을 맞추면서 영국침략군을 조선 전선에 보내겠다고 맨먼저 짚어냈습니다. 제국주의는 큰농도 작은농도 다 승냥이였습니다. 우리인민은 영국제국주의자들이 조선전선에 누구보다 군대를 먼저 보내면서 동남아시아를 약탈할때처럼 조선인민을 무자비하게 죽이라고 지껄였다는것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동영상)

미 7함대는 미태평함대와 영국군함대 수십척을 더 증강하고 우리나라 동서해안을 봉쇄했습니다. 적들은 중폭격기 4개 련대와 항공모함을 더 끌어다가 아군의 전선과 후방을 더욱 악랄하게 폭격했습니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50년 7월 일 방송연설에서 우리인민은 미제를 결정적으로 소탕하고 최후의 승리를 이룩 할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두타격 방향의 인민군 부대들은 ... 7월 12일에는 조치원을 해방하고 드디어 7월 13일 에는 금강계선에 진출했습니다. 바빠맞은 양키놈들은 금강교를 폭파했습니다. 인민군들은 7월 1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해주신 작전시간안에 금강도하전투를 끝냈습니다. (동영상)

그처럼 호언장담했던 최전방어선이 모래성처럼 무너지자 워커는 미일지병 사단장에게 빨리 대전에 도착하라고 호되게 몰아쳤습니다.

부산과 포항에 상륙한 미 25사와 미1지병사단이 황급히 대전으로 밀려오고 있을때 금강을 강행 도하한 인민군련합부대들은 급속히 대전 포위환을 좁혀 나갔습니다. 한편 온산 개성을 떠난 인민군 제 4사 18연대가 하루밤 사이에 적후 100리길을 강행군하여 대전 금산사이 대전 영동사이에 적의 되로를 감쪽같이 차단했습니다. 그리하여 대전에 모인 적들은 완전히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었습니다. 더는 저항할 능력을 잃은 미 제 24사는 살구멍을 찾아 금산과 영동으로 내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그곳을 차단하고 있던 아군 18연대에게 얻어막고 다시 대전으로 뒷걸음 쳐와서 갈팡질팡하다가 몽땅 섬멸됐습니다. 인민군대의 령활한 주체전법앞에 아메리카 정예사단은 완전히 섬멸됐습니다. (동영상)

7월 20일 대전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날의 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대전 해방전투는 그저 한개 도시를 해방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런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제 침략군을 타승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전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심장으로 받들고 강력한 정면 타격과 우회기도 그리고 대부대와 소부대 활동을 능숙하게 배합하여 발악하는 양키들을 무자비하게 섬멸해 치웠습니다. 그때 미 24사 사단장 딘 농도 병사복을 벗고 내빼다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딘농의 가련한 물골에서 미제의 말로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인민군대는 싸움도 잘 했지만 인민들 앞에서는 다정한 정치 활동가였습니다. 해방된 남반부 전지역에서는 당과 인민정권 근로 단체들이 신속히 복구되었습니다. 남반부 인민들도 참다운 나라의 주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인민군이 대구를 떠나기전 집벽에 《다시 대구에서 만나자》라고 쓰고 있다. (동영상)

남진의 계선에 오른지 38일 인민군 부대들은 전전선에 걸쳐 락동강 계선에 진출했습니다. 미제 침략자들은 지상군을 증강하는 한편 후방이 무너진 인민군대의 보급로를 끊어버리려고 맹폭격을 감행했습니다.

후방도 전선이였고 조선인민은 누구나 다 불굴의 전사였습니다. 후방인민들의 지원은 락동강 용사들의 용맹이 되고 멸적의 포화로 됐습니다.

《원수를 무찔러 남으로》

인민군대는 파죽지새로 진격하여 불과 1달 반만에 남반부 전지역 90%이상, 총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하고 적들을 락동강 좁은 지역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부산 도교 워싱턴사익의 통신은 비명과 고향소리로 차념쳤습니다. 당황한 백악관의 두목들은 대공소작전도라는 것을 짜놓고 태평양 방면에 록해공군 전체와 지중해 함대 일부 수많은 비행기들을 조선전선에 들여밀었습니다. 부산항에 미제 침략군과 영국을 비롯한 형형색색의 고용된 우리들이 물밀듯이 쓸어들었습니다.

부산은 이때 총인구가 47만으로 부터 300여만으로 격증했습니다.

도시의 총 수도 물량2만 2천톤 가운데 1만 5천톤은 미제 고용병들이 다 쳐마셨다 합니다.

부산은 도시가 아니라 적들의 대병영이였습니다.

부산에 맥아더가 급히 기여들었고 미 8군 사령관 워커놈은 그 무슨 함장 수여식을 벌려놓으면서 고용병들의 떨어진 사기를 추켜 세우고 패전을 수습해보려고 돌아왔습니다. 이 락동강 100km 의 좁은 전선에 적들은 무려 20여만의 무력을 쓸어들었습니다. 적들은 1000여대의 비행기로 맹폭격을 감행했습니다.

인민군 부대들의 당조직과 민청단체들은 전투원들을 영웅적 결전으로 불렀고 전사들은 당과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아낌없이 바쳐 싸울것을 맹세다졌습니다. 락동강전투에서 용맹을 떨친 전기철영웅과 조순옥영웅 박현철, 장병달을 비롯한 포항의 8용사들 그들은 언제나 승리의 한길우에 전진하는 대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동영상)

[기록영화]조국해방전쟁 제3부

<https://www.youtube.com/watch?v=Z9pqxWKABIE>

1950년 8월에 이르러 락동강전선에서 미제 침략자들은 만신창이 운명에 빠져 아우성치며 부산으로 몰려 들고 있었습니다.
극도로 당황망도한 백악관 두목들은 이 패배에서 벗어나보려고 새로운 모험에 매달렸습니다. 트루만이 태평양 방면에 미 육해공군을 총 동원하고 지중해 함대까지 끌어들여 그 무슨 총 공세를 하겠다고 광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기운을 얻은 맥아더 사령부의 전쟁광들은 《크로마이트 작전》이라고 하는 대규모적인 인천상륙작전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미제는 이 모험적인 총 공세에 15개 추종국가 군대들까지 끌어들었습니다.
이건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하는 영국고용병들이고, 이건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고용병들입니다.
토이기 (터키) 17려단농들도 조선으로 쓸어들었습니다. 부산으로 방대한 침력무리들이 쓸어들어오자 낙동강 전선에서 패전장군이 되어 어깨쪽지가 처져있던 워커가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미제의 대포밥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고용병들은 부산으로 건너오기 전에 일본에서 조선지형을 가상한 군사연습까지 벌였습니다.
때를 같이 하여 일본의 요시다 반동정부는 미제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조선에서의 싸움은 일본에서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따라서 전쟁터에 놓이게된 우리가 애매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은 전선에서 도망치는 것과 같다》고 떠벌렸습니다.

력대적으로 큰 놈을 등에 업고 해외 팽창에 날뛰어온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조선 재침야망에 들떠서 인천해역의 항로와 수심 암초와 관련한 자료들을 맥아더에게 넘겨 주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90척의 소해정까지 섬겨바치며 꼬리를 쳤습니다.
드디어 맥아더 사령부의 호전광들이 인천상륙작전도를 펼쳐놓고 300여척의 군함들과 1000여대의 비행기 50000여명의 무력을 인천 해상으로 수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략의 검은 파도가 인천 앞바다로 밀려 들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앞에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 었습니다. 엄혹했던 그때 이야기는 지금도 이 조국해방전쟁 기념관에 간직 되어 사람들을 전화의 그날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950년 9월 중순부터 조국해방전쟁은 제 2계단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인천 서울지역 방어전투는 월미도 방위자들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만무례한 적들은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을 3일만에 강점한 다음 남쪽에서 침공하는 미8군과 함께 인민군 주력부대들을 이른바 포위 소멸하겠다고 하면서 군함들을 들이밀었습니다.

9월 13일 미10군단의 선견부대가 80여척의 군함을 몰고 월미도로 달려들었습니다.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의 대군단과 조선인민군 1개의 해양보총대가 대결했습니다.

월미도는 불속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 불길속에서도 첫날 격전의 승리는 월미도 방위자들 것이었습니다. 두번째 날도 맥아더의 군단은 여지없이 쫓겨났습니다. 아무리 군함들을 들어 밀어도 연속 패전하게 되자 취지선의 맥아더가 월미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에 받힌 맥아더는 우격다짐으로 단 15분동안만에도 3000여탄의 함포탄과 폭탄을 퍼부 었습니다. 1000여대의 비행기가 월미도의 하늘을 덮었습니다.

전투는 가열했으나 월미도 방위자들은 자신의 긴 한생보다 조국을 위한 3일이 더 귀중했기에 몸이 그대로 조국의 성벽이 되어 원수와 싸웠습니다. 이 불타는 섬에서 전사들의 고향은 멀 었지만 그들의 가슴속에는 고향산천에 안겨있 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바닷가 해방넘치는 기쁨의 마을이 였고 생활이 그대로 노래이며 춤이던 행복의 요람 인민의 락원이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이고향 이생활을 다시는 빼앗길수 없었습니다. 혈전의 시각 월미도 방위자들은 승리한 조국을 눈앞에 그리며 위대한 수령님 우러러 마지막 전포를 날렸습니다.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 드리는

맹 세 문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이시여!

수령님의 명령을 심장에 새기고 월미도를 월미도를 굳건히 지켜선 우리 해안 포병 중대원들은 미제침략자들과의 판가리 싸움을 앞두고 삼가 이 맹세문을 드립니다.

얼마후 미제 침략군해적놈들은 또 다시 불속에 잠긴 이 월미도로로 달려들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았고 수령님 품속에서

강철같은 혁명전사로 자란 우리들은 조국의 섬 월미도를 지켜 최후 한사람이 남을때까지 원수와 싸울것을 최고 사령관 동지께 굳게 맹세합니다.

1950년 9월 15일

리대훈동무소속 해안포중대군인일동

위대한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한 리대훈영웅과 그의 전우들의 위훈은 조국의 섬 월미도와 더불어 길이 불멸할 것입니다.

인천 상륙전에서 맥아더 오성장군은 한개의 군단을 가지고 한개의 중대앞에 패전한 장군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인천방어부대가 적들에게 연속 죽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인민군부대들의 서울지구 방어임무는 빛나게 수행되었습니다. 서울을 3일만에 강점하겠다는 미십군단이 14일 동안 연속 패전에 패전을 거듭함으로써 인민군 주력부대들을 이른바 포위 섬멸하겠다고 하던 맥아더의 기도는 완전히 파탄되었습니다. 서울일대는 적들의 비명소리로 넘쳐났습니다. 여기서만도 수만명의 고용병을 잃은 미제두목들은 이것은 미국력사에 없는 참패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새로운 흥계에 매달리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미제의 전조선침략을 합법화하는 이른바 결의안을 통과시킨 트루먼은 태평양 섬의웨이크 섬(Wake Island)에 기여들어 맥아더와 흉악한 밀담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맥아더는 조선전쟁을 11월 23일까지 끝내고 제놈의 병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췌쳤습니다.

이 모험적인 망상을 실현하기 위해 미제는 조선전선에 막대한 병력과 전투장비들을 증강했습니다. 수십만의 대병력이 38선 이북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싸움은 간고했고 북으로의 행군길은 준엄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 후퇴의 길에 나선 우리인민과 전사들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 한다는 신념만이 끓고 있었습니다.

10월 11일

오늘 우리들의 중요과업은 우리의 한치의 땅도 피로써 지키며 새로운 결정적타격을 적에게 주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준비하며 또 외국무력간섭자들과 그들의 주구 리승만도당을 우리 강토에서 단꺼번에 또 영원히 소탕하는데 있습니다.

김 일 성

10월 14일 드디어 제 2전선 부대들의 출전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싸우다 고향땅에 묻힐 지언정 원쑤에게 짓밟혀 노예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해방후 5년세월 것처럼 행복했던 고향마을은 불속에 잠겼습니다.

이 아메리카 식인종 우리들은 북반부를 일시 강점했던 1달 남짓한 기간에 무려 수십만의 무고한 인민들을 무참히 살육했습니다.

신천에서 만도 무려 3만 5천여명을 학살했습니다. 피는 피로써 죽음은 죽음으로써 갚을 것입니다.

청천강반전투

인민군부대들은 11월 25일 부터 시작된 적들의 《크리스마스 총공세》를 그 첫날부터 완전히 짓부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천강반에는 미8군사령관 워커가 지휘하는 3개 군단이 있었습니다. 《수단껏 이곳을 탈출하라》 이것이 미국장교들의 명령이 었습니다.

신성한 우리조국 강토를 더럽히고 무고한 우리인민을 살육하며 날뛰던 이 식인종무리들을 똑똑히 보십시오. 이것들은 온몸에 구렁이(문신)를 감고 사는 비대한 짐승 아메리카가 낳은 미국산 승냥이들입니다.

화약내와 피비린내가 뿜속까지 들이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시체를 밟고 생겨난 그날 부터 허드슨 강변에 자유의 여신이 날은것이란 이런 식인종 무리들이 었고 백악관은 이것들을 가지고 조선을 삼키려고 달려들 었습니다.

장진호반에 갇힌 미 10군단 고용병들은 우선 조선의 추위앞에 벌을 받고 있습니다. 상처는 봉대로 싸맬수 있겠지만 누더기가 된 미국의 그 강대성의 실화야 어떻게 봉대로 싸매겠습니까. 이때 워싱턴의 주인들은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동영상)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미쳐버린 미국 , 이것들을 위해 눈을 퍼먹어야 하는 고용병들의 이 물골을 보십시오. 살아갈길을 대달라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지만 장진호반의 하늘에서는 미국의 하나님이 아닌 조선인민군의 복수의 불벼락이 쏟아져내렸습니다.

미 패잔병들로 일대 수라장을 이룬 흥남항입니다. 미제의 우두머리들은 미국이 조선에서 겪은 패배가운데서도 최악의 패배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승냥이는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발악하는 법입니다. 적들은 달아나면서 닥치는대로 파괴했습니다. 미일해병사단 스미스놈은 흥남지구에서 일락 무덤장군으로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갇은 만행을 일삼던 간악한 원수들이 죽음에서 벗어나보려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평양해방전투 시작

12월 6일 수도 평양에 공화국 기발, 승리의 기발이 휘날렸습니다. 미8군사령관 워커도 연천계선에서 저승으로 갔습니다.

저들의 패배에 악이오른 전쟁두목 트루먼은 조선전쟁을 더욱 확대하여 원자탄까지 사용하겠다고 지껄였습니다. 흉악무도한 미제의 조선전쟁확대 책동은 전세계인민들의 강력한 항의 규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미제의 조선침략과 야수적 만행을 단죄하는 항의의 목소리는 아시아와 구라파에서 세계도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에서 미제는 피묻은 손을 떼라 !》

그러나 미제는 인류와 역사앞에서 도전하면서 일본에서 미 16군대를 새로 편성하는 한편 15개 추종국가 고용병들을 더 많이 조선전선으로 끌어들이었습니다.

인민군의 서울해방전투진입

1951년 1월 4일 서울은 다시 해방되었습니다

[기록영화] 조국해방전쟁 제4부

<https://www.youtube.com/watch?v=uTAb0EIWAno>

길이 빛나라 위대한 전승업적이어
후방도 전선이다.
모든 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후방의 공고성은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항구적 요인들 가운데서 첫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우리 인민들을 승리에로 끌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선의 승리를 위하여 후방을 철옹성같이 다질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아래 전국의 전시상태와 전시동원령이 선포 되고 전민이 군사훈련에 떨쳐 나섰으며 나라의 경제도 지체없이 전시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조선 전쟁은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는 가열처절한 립체전이였으며 미제 침략자들의 무력침공으로 부터 조국을 사수하기 위한 준엄한 전 인민적 항전이였습니다.

가능한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군수품생산으로 전환되었으며 군수물품이 선차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나라의 중요공장들이 안전지대로 소개되어 나갔습니다.

나라의 도처에 지하 공장들이 신속히 건설됨으로써 전시생산을 위한 기지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큰 공장을 ... 어깨로 날라야 했습니다.

작업량은 산같이 쌓였고 노력은 엄청나게 모자랐지만 우리 로동계급들은 자기힘으로 지하공장을 꾸리고 전시증산전투에 진입했습니다.

누구나 2몫 3몫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다고 힘들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개시되자 수많은 녀성들이 직장에 진출하여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스스로 맡아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전선으로 !

이 달아오르는 쇠덩어리도 우리 로동당원들과 강철전사들의 가슴보다는 뜨겁지 못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미제에 대한 끝없는 증오가 여기 특수강생산전투장에 타번지고 있습니다.

미제에 대한 복수의 쇠물은 여기서도 끓고 있습니다. 전쟁전에는 밥가마를 만들던 이 지방공장도 지금은 수류탄 공장으로 됐습니다.

여기는 지하병기공장입니다. 《무장한 원쑤는 오직 무장으로 때려 잡아야 한다》 백두밀림의 병기창에 울리던 우리 생산의 마치 소리가 여기 지하병기공장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지난 전쟁시기 이 지하공장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운 그날의 전선작업반원들이 옛전투장에 찾아와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벽시계는 돌고 돌았지만 그들은 시계를 보지 않고 일했습니다. 언제 휴식시간이 오고 교대시간이 되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승리의 시간을 앞당겨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날의 한초한초는 충성과 위훈의 한초한초 였습니다.

이공장에는 전략적 후퇴시기에 20명의 결사대원들이 단 10일동안에 750정의 기관단총을 조립하여 제 2전선부대에 보낸 영웅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깡도는 정전으로 깜깜해지고 밖에는 적들이 있어 성능검사 사격도 깡안에서 했습니다. 연기와 화학가스에서 쓰러지면서도 끝내 만들어낸 750종의 기관단총.

박격포생산은 2배, 6배로 늘어났습니다. 전선의 용사들은 이 박격포를 승리의 폭발소리라고 불렀고 우리로동계급이 만든 곡사포로 미제의 기술적 수적 위세를 여지없이 짓눌러 나갔습니다.

그날의병기전사 .. 직장장은 말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0년 7월 하순에 공장을 여기 안전한 깡도로 옮겨 주시고 포화속을 헤치시고 친히 우리들을 찾아주시어 우리들이 나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어버이 수령께서는병기공장의 로동계급이 땀을 많이 흘리면 전선의 용사들이 피를 적게 흘리고도 적을 많이 때려잡을 수 있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밖이 부럽지 않은 이 지하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로동자들을 위해 문화시설들을 다 꾸려 주셨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증오와 원한이 모이고 굳어져 이 탄알이 되었습니다.

이 탄약을 1211 고지로, 이포탄을 351고지 전투에 써달라 !

전선에서 연속 패전한 미제는 비렬하게도 후방을 더욱 악랄하게 파괴했습니다. 땅우의 모든것은 재더미로 변했습니다. 인민들은 정든 집을 떠나 산기슭의 굴속으로 몸을 옮겨갔습니다. 우리 인민은 많은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원쑤들은 우리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어버이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해방후 생활에 대한 그 사랑은 앗아갈수 없었습니다. 해방을 맞아 우리 손으로 제 살림을 꾸리기 시작하여 살아가게 될 만한 때였습니다. 행복의 노래 높던 강산에 전쟁의 참화를 들썩운 미제 원수놈들, 다시는 빼앗길수 없는 우리 제도 우리 조국이였습니다. 미제에 대한 분노는 온 나라에 타번졌고 격노한 청년들은 전선으로 떠났습니다. 남편과 오빠들은 전선에 있었고 아내들과 누이들은 후방초소에 섰습니다. 후방의 여성들은 천도 물감도 다 자체로 해결하여 군복을 지었고 신발을 만들어 전선에 보냈습니다. 전시증산 투쟁의 불길은 자동차수리공장에서부터 바다로 나가는 어느 전사들 속에서도 세차게 타번졌습니다.

적기들은 머리위로 날아쳐어도 용감한 전시원호 돌격대원들은 바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용사들은 물고기를 잡아 전선의 취사장에 보내주었고 밀림속의 여성들도 전선에 나간 남편들을 대신하여 아름드리 나무를 찍어 전선과 후방에 보내주었습니다. 전쟁의 시련을 가슴으로 맞받아 헤쳐나가는 후방의 여성들과 인민들의 백절불굴의 기상이 이나라 북변의 장작무에도 비꼈습니다. 가열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준엄한 나날에도 친히 농민들을 찾으시어 나라의 농사형편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며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는 투쟁》이라 하시면서 한알의 곡물도 더 많이 생산하며 한치의 땅도 묵히지 말라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었습니다.

전선과 후방에 더 많은 식량을 보내자!

그런데 농촌에는 소가 부족했습니다. 일시적 후퇴시기 적들은 평남에서만도 6만 4천여마리의 소를 약탈했습니다. 농민들은 쇠시랑으로 미제의 가슴팍을 찍어 넘기는 심정으로 땅을 팠습니다

농촌에 새 장정 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보탑을 잡고 나선 이처녀는 대천군 춘국리에 18살의 김낙희입니다. 밭갈이는 여성들에게 맡기라! 전국각지 농촌들에게 여성보잡이 운동이 세차게 벌어져 1952년에는 황해도에서만도 5000여명의 여성들이 보탑을 잡고 나섰습니다. 김낙희 여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성의 힘으로 밭갈이를 보장했습니다.》 농민들은 농사도 짓고 도로복구에도 나가고 군수물자 수송도 해야 하는 그 바쁜속에서도 봄파종을 앞당겨 나갔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전선에 나갔기에 남성들이 하던 밭갈이, 나무베기.... 모든 일들을 여성들이 떠맡았습니다.

야수의 우리들인 미제는 양수장에도 저수지에도 마구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모내기는 온나라가 동원되어 해재졌습니다.

녀인들이 모내는 동안 적기가 달려들고 있다고 신호하는 소년입니다. 모내기도 전투였습니다. 이때는 무슨일을 해도 항공감시를 꼭꼭세웠습니다.

적기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적기가 온다는 신호를 듣고 피하는 농민들.

이런일은 하루에도 몇번씩 겪어야 했습니다. 미제는 모내는 농민들에게도, 한마리 황소를 보고도 줄폭탄을 퍼붓는 살인귀들이였습니다. 적들이 이럴수록 우리 인민의 의지는 100배로 더 강해졌습니다.

통쾌한 공중전도 보았고 모내기도 제철에 끝냈으니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군민이 힘을 합쳐 전쟁을 이겨가는 기쁨에 포전머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후방인민들은 생활이 어려운 속에서도 전쟁이 개시된지 단 2달동안만에도 80여만점의 위문품과 900여톤의 부식물 수십만톤의 위문 편지를 정성껏 전선에 보냈습니다.

전사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후방의 목소리는 하나와 같았습니다. 후방은 넘려말고 더 많은 미국놈을 잡아 달라!

포연으로 덮힌 전선으로 달려온 인민들의 전선참가대가 전사들과 생사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사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었습니다. 부상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참가회원들도 많았습니다. 폭탄을 지고 달리는 이길은 그대로 소왕청방어 전투때 유격근거지의 인민들이 산으로 오르던 바로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널리 알려진 금강의 딸들인 3동서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전사들 앞에서 노래와 춤을 추는 인민들.

수령님께서는 내각 결정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어서 인민구호 대책에서 부터 인민생활 안정과 유자녀 고아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인민들은 전시증산투재에서 그 사랑에 보답할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버이 사랑은 온 나라에 넘쳐났고 인민들의 가슴속에는 충성심이 넘쳐났습니다. 한편 나라의 도처에 유자녀학원들과 보육원들이 세워져 아버지 사랑을 대신해주 었습니다. 거리를 헤메는 고아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미제가 200여만의 대병력을 들여밀고 있을때 우리당은 교과서생산과 인민교원양성사업을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늘을 지붕삼고 공부해야 할 때도 있었으며 45분 수업시간에도 몇번씩 방공호로 들어가야 할때도 많았습니다.

지하인민병원입니다.

미제가 대규모적인 신공세를 떠들며 살인적인 초토화 폭격을 감행하던 바로 그때인 1953년 1월 1일 우리 당은 무상치료제 실시를 온세상에 선포했습니다.

폭격속에서도 굴함없이 학생들과 인민들이 모든 수많은 파편들은 12개의 땅크가 되고 대포가 되어 미제에게 죽음을 안겼습니다. 미제가 하늘에서 날린 물체가 녹아 그릇이 되었습니다. 낱알털기는 미제를 두들겨패는 후방전선의 중요 전투였습니다. 농민들은 혼자서 일하는 것 보다 여럿이 모여 일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가하는 것을 절실히 체험하면서 낱알털기 작업을 불이나게 해재졌습니다.

통신원이 제일 먼저 찾아간 집은 외아들 모두 전선에 보낸 할아버지네 집이 었습니다.

전시의 식량을 제때에 보내주기 위해 가마니생산도 아주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연예인들도 자주 찾아와 전선연예활동을 자주 펼쳤습니다.

전선수송의 길, 그길은 치열한 격전의 길이였습니다.

미제의 철도에 대한 폭격훼손은 1952년에는 그 전보다 72배나 격증했습니다.

한대의 기관차도 멈추지 말고 전선에 동원하자!

우리 기관차들이 계속 달려나가자 공산군의 철도를 모조리 파괴하여 전선의 인민군대들을 이른바 질식시키겠다던 미군 사령관 캠프리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선으로 전선으로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을 보내자!

간악한 적들은 철다리를 하루에도 3번 4번 끊어놓았습니다.

철도 복구대와 인민들은 영웅적으로 싸워 신속히 철도를 복구했고 1952년에는 600개의 새 철도를 놓는 기적을 떨쳤습니다.

[기록영화] 조국해방전쟁 제5부

<https://www.youtube.com/watch?v=z1MOqIt-9Bc>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지난 어느 한 시기에 앵겔스는 영국군대를 가장 야수적인 군대라고 불렀다. 제2차세계대전 시기에 독일파쇼군대는 그 야수성에 있어 영국군대를 능가하였다. 사람의 두뇌를 가지고서는 그 당시 히틀러 악당들이 감행한 만행보다 더 악독하고 더 무서운 만행을 상상할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에서 양키들은 히틀러 도배들을 더 훨씬 능가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은 침략자 미제의 포악무도한 20세기 야수와의 싸움이였습니다.

전쟁의 불을 지른 첫날부터 미제는 매분매초를 철두철미 야만적인 파괴와 살인만행으로 이어나갔습니다. 조선땅의 모든 것을 재더미로 만드는 것, 이것이 미제의 조선전쟁방법이였으며 목적이였습니다.

군사적 목표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무고한 인민들의 생명과 평화롭던 생활을 불속에 잠그기 위해 미제의 야수들은 전쟁 3년간에 700~ 1000대의 비행기를 매일 2회씩 북반부 전지역에 내밀였습니다.

미 극동부사령관 클라크놈은 《북조선의 78개 도시를 지도위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지껄였습니다.

우리의 수도 평양에 대한 미제의 폭격은 가장 야만적이였습니다.

평양에는 살림집이 8만동이였습니다. 미제는 1951년 단 한해에만도 6만 4천동을 파괴했습니다. 미제야수들이 평양에 퍼부은 폭탄수는 총 42만 8천7백여개, 이것은 평양인구 한사람당 한개 이상이 넘는 수자였습니다. 잔인한 히틀러의 폭격기들도 이렇게까지 간악한 초토화 폭격을 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설계가 리용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 미제놈들은 조선이 100년이 넘어도 일어나지 못한다고 떠벌렸습니다...》

평화롭던 함흥도 하루아침에 옛모습을 다 잃었습니다. 미제는 전쟁을 도발한지 반년만에 벌써 북반부의 모든 도시 군소재지들을 거의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거리는 허물수 있었어도 우리인민의 마음속에 안겨있는 미래는 허물수 없었습니다.

원산시가 불속에 잠겼습니다. 미제는 동해의 그 아름답던 문화휴양도시 원산에도 무수한 폭탄과 함포탄을 퍼부었습니다.

조선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그 단하나의 리유로 하여 온나라의 해안도시들에 수만발의 폭탄과 함포탄을 퍼부어 무고한 인민들을 피로 물든 참혹한 폐허로 만든 미제야수들, 미제의 폭탄과 나팔탄으로 하여 남으로는 해주로부터 북으로는 여기 강계에 이르기까지 온 조국땅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날의 폐허를 목격한 오스트레일리아 기자 보체트는 《력사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처럼 파괴된 나라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면적인 파괴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제는 전쟁에 들이댄 미공군의 85%를 평화적인 후방폭격에 돌렸습니다.

여기 서해의 항구도시 남포에는 수천개의 네이팜을 뿌렸습니다. 미제가 뿌린 네이팜은 전쟁 첫 1년 반동안만에도 놈들이 2차 대전때 쓴 총량의 5배에나 달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들도 농촌과 어촌 깊은 산골마을도 미제가 폭격대상으로 삼지 않은곳은 없었습니다.

미제 식인종들은 무고한 농민들의 머리우에도 살륙의 불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해방후 인민들이 새로 지은 정든 집들이 었고 그렇게도 소중한 누렁소였습니다. 일제의 종살이에서 겨우 허리를 편지 5해밖에 안된 우리농민들의 집을 불태우고 목숨까지 앗아간 살인귀 미제.

미제는 아무런 군사시설도 아닌 농경지 37만 천여정보나 파괴하고 10만 9천여마리의 부림소를 죽였으며 수많은 관계시설을 폭격한 야만의 무리였습니다.

석암저수지가 파괴되 었습니다. 간악한 미제는 수많은 저수지들을 닥치는대로 파괴하여 농경지와 마을과 인민들을 물속에 쓸어넣었습니다 미제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을 품고 수많은 우리 부모 처자들이 집을 잃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제가 우리인민의 살림집을 전쟁 3년간에 파괴한 수자는 무려 60만 5천 여동에 달했습니다. 집을 잃고 혈육들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인민들에게 또 다시 기총탄을 퍼붓는 간악무상한 미제. 방금 뛰어놀던 아기들을 토방위에 쓰러트렸고 젖먹이 아기에게서 엄마를 앗아간 흡혈귀들. 이것이 미제의 인류의 《자유》를 위한 투쟁입니다.

학교가던 아이들과 길가던 농민들까지 살륙하고도 희열을 느끼는 살인마가 바로 미제였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한기자는 《미국은 세계에서 자유를 상징하는 기념물이 가장 많은 나라이지만 자유가 가장 란폭하게 유린되는 곳 , 그곳 또한 미국이다》 고 말했습니다.

미국, 그곳은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살인무기 공장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전쟁두목들은 조선전쟁에 더 많은 공중비적들을 들이밀었습니다.

미제의 공중비적들은 우리나라의 평화적인 산업시설들을 그 터전마저 없애려고 악랄하게 날뛰었습니다. 일제가 파괴한 용광로들을 복구해놓고 첫 쇠물을 뽑은 그 기쁨에 눈시울 적시며 아무리 일하여도 힘든줄 모르던 사랑하는 공장들이 숨결을 멈췄습니다.

생산돌격 산업부흥의 노래 넘치던 제철소와 제강소 기계공장과 화학공장들이 이제는 정다운 고동소리도 들을길 없고 연기뿜은 굴뚝만이 가슴 허비며 안겨옵니다.

미제 야수들은 비료를 생산하던 이 공장에도 115대의 폭격기로 1500여발의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극동 사령관논은 《목표로 될 만한 공업시설은 없어졌다. 조선에 있는 미공군의 골치거리는 이미 파괴할 것이 남지 않은 것이다.》

미제가 전쟁 3년간 공장기업소들을 파괴한 숫자는 무려 8천 7백 여개에 달했습니다. 미제는 이땅의 모든 변전소 발전소들을 파괴하여 조선을 암흑천지로 만들려고 날뛰 었습니다.

워싱턴의 폭탄들은 작은 쪽배들까지도 다 마사놓았습니다

미제의 공중 폭격들의 북반부 철도 폭격횟수는 1951년 1월에 비하여 1952년 5월에는 무려 71배로 늘어났습니다.

적십자 표식이 뚜렷한 민간병원에 네이팜을 던져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를 살해하는것, 이것이 바로 미국식 인도주의였습니다.

글 읽는 소리만 평화롭게 들리던 학교들에 로켓탄과 기총탄을 뿌리는 것이 바로 아메리카의 문명이 었고 자선이 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안고 우리 노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제나라 글을 읽혀가던 그 교실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말도 모르던 이 어린애들이 여기서 피를 흘렸고 요람을 잃었습니다.

미제의 약탈자들은 7775동의 과학문화기관들과 문화재 등을 파괴하고 평양의 영광종을
비롯하여 산간오지에 있는 문화유물들까지 모조리 파괴함으로서 인류문화의 교살자 20세기
야만으로서의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습니다.
유구한 세월에 외래의 침략자들과의 싸움도 많았고 인류사회에는 파괴자들도 많았지만 옛
문화 유물들까지도 찾아 다니며 그렇게 파괴한 야만인들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하나님의 사도들은 마지막 하나의 교회당까지도 다 파괴했습니다.
미국의 전대미문의 야수적 폭격으로 온 조국땅이 불속에 묻혔습니다.
폭행만행으로 조선을 세계 지도에서 영원히 없애버리겠다고 야수처럼 날뛰던 미제는
지상에서도 비린내 나는 살육만행을 미친듯이 벌려놓았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시체를 밟고 솟아난 그때로 부터 근 200년을 인간의 피로 비대해진
미제의 살인만행은 북반부를 일시 강점했던 그 기간에 극도에 이렀습니다.
포악한 살인마인 미8군사령관 워커논은 이렇게 짓어댔습니다 《유엔군병사들이여 설사 그대들
앞에 있는 것이 어린이나 로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어서는 안된다. 죽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자신을 파멸로 부터 구원하는 것이며 또 유엔군병사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이다.》

미제가 일시 강점한 북방부땅은 우리인민의 피로 물들 었습니다.
원한에 사무친 나경광산입니다 - 미제 살인귀놈들은 여기 150m 수직갱에 무려 809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산채로 던져넣어 학살했습니다.
운길광산에서만도 2천여명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제의 피묻은 손에 무참히
쓰러졌습니다.
한 양키놈의 시체에서 나온 사진에는 이런글이 씌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죽이지 않고는
잠이 오지 않는다, 죽이라.》
살인과 피비린내로 가득찬 미제, 극도의 인간증오 사상으로 뼈속까지 물들었고 어릴적부터
살인 흥기를 휘두르며 길들여진 극악한 야수들, 바로 이것이 미국병사들이 었습니다.

남조선에 기어든 그 첫날부터 미제는 피비린 살육만행을 벌려왔습니다.
1949년 7월까지 미제가 남조선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살육한 수는 무려 9만 3천여명에
달했습니다.
1951년 5월 우리나라에 온 국제연맹 조사단이 평양으로 부터 신천과 아낙 남포와 개천 원산과
문천등 이르는 곳 마다에서 미제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수십만의
평화적 주민들을 학살한 피어린 현장들을 목격했습니다.
1951년 5월, 미제의 몸서리치는 현장을 목격한 17개 나라에서 온 조사단원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선인민은 미군에 의하여 무자비하고 또 계획적인 살육을 당하고
있다.... 모든 만행들은 미국병사들이나 장교들에 의하여 진행되었거나 미국장군들의 명령에
의하여 감행된 것이다....이러한 대중적학살과 대중적고문들은 히틀러나치스들이 ...
구라파에서 감행한 만행보다 더 흑심한 것이다》

세계는 히틀러를 무색케하는 야수를 보았습니다. 그자는 바로 미제의 두목 트루만이었습니다.
이자가 지껄인 평화란 곧 전쟁이었고 인도주의란 곧 살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잔인성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임신부들의 배를 갈라 죽였고 철부지 어린이들을 작두로 토막내어 우물에 던졌습니다.

농들은 그의 남편의 귀와 코를 철사로 꿰어 끌고 다니다 학살했으며 머느리를 이 나무에 결박하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미제는 이 달구지로 무고한 인민들의 사지를 찢었고 톱으로 머리를 썰었으며 이마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가족을 다 잃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신천땅의 소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우리집 식구 17명도 몽땅 살해됐습니다.》

농들의 그의 할아버지의 머리를 도끼로 찍었고 할머니와 어머니의 젖가슴을 도려냈으며 어린 두동생의 두눈을 뽑고 칼로 목을 잘라 살해했습니다.

미제 살인귀들은 신천군땅의 방공호 주변 전호에서만도 무려 650명을 생매장 했습니다.

군당 방공호에서는 900여명의 인민들을 휘발류로 불태어 죽였으며 군내무소방공호의 입구는 밀폐하고 다이나마이트를 폭파하여 520여명을 몰살시켰습니다.

미제는 조선사람이라면 늙은이도 젊은이도 녀성들도 아이들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질고 근면하던 녀인들의 원한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다 풀리지 않을것입니다.

꽃피는 고향과 함께 창창한 꿈도 많던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석당교에서 억울하게 쓰러졌습니다.

미제는 신천군 남부저수지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저수지와 강물들을 우리인민의 피로 붉게 물들였습니다.

대동강에서만도 4천명의 무고한 인민들이 물속에 잠기고 강가에 쓰러졌습니다.

신천군 원암리에 화약창고입니다. 미제의 살인귀들을 절규하며 원통하게 죽어간 102명의 어린이와 400명의 어머니의 피맺힌 원한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인민들은 하고 싶은 그 많은 이야기와 부탁을 담아 이런글을 남겼습니다. 《조선 로동당 만세》 당과조국은 목숨보다 더 귀중했습니다.

그들은 철창속에서도 아버지 장군님을 그리며 조각천들을 모아 이 기발을 만들었습니다.

신천담배공장 녀맹위원장이였던 박연교 녀성은 최후의 순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은 영원히 살아있다. 나는 악독한 네놈들에게 죽으나 나의 뒤에는 수많은 로동당원이 있다 나의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있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 로동당 만세!》

말이는 《복수》 둘째는 《하》 세째는 《리라》

그들의 이름을 합치면 이런 글이 됩니다. 《복수 하리라》

어찌하여 자식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그들의 어머니인 리옥희 녀성은 말합니다. 《그때에 저는 8살이였습니다. 미국놈들은 저의 두팔을 빼앗아 갔으나.... 》 미제를 복수 하리라!

전쟁미치광이인 트루만의 명령에 따라 미합동참모 본부의 의장인 브렛드리 농은

조선에있어서의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의 살상을 주는데 있다고 지껄이면서 1951년 10월 세균무기를 사용할데 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

미제는 히틀러도 감히 감행하지 못한 이세균전을 오래전 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세균무기 금지에 관한 1925년 제네바의정서에도 유독 미제와 일제가 조인하지 않았다. 세균탄과 함께 미제는 살인용 미생물을 보유한 여러가지 물체들까지 뿌렸습니다 . 우리인민을 멸살시키겠다고 더러운 벌레떼까지 들이민 미제야말로 가장 추악한 야만인, 인간의 탈을 쓴 장티브스 코레라 페스트였습니다.

미제살인귀들은 1952년 1월 28일 부터 3월 25일까지 단 2달 동안에만도 무려 400회에 걸쳐 70여개소에 세균탄을 퍼부어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했습니다.

1952년 3월 우리나라에 왔던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 성원들은 세균전을 감행하는 미제를 규탄하면서 이렇게 폭로 했습니다.

《조선에서의 사건은 전쟁이 아니라 범죄이며 미제국주의자들의 행위는 범죄적이며 그 시작에 있어서 범죄적일 뿐아니라 그 실천에 있어서 범죄적이라는 것을 단언한다.》

세균전에 가담했던 양키 조종사 포로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세균탄은 히틀러 나치스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람가죽으로 등잔가스를 만든 밀사코 같은 악당들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월가의 전쟁상인들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했다.》

세균전 만행을 감행함으로써 미제는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더 깊이 판다.

미제의 세균전 만행을 분쇄하자!

미제의 세균만행에 세계는 격분했다. 아시아와 구라파에서 세계의 도처에서 조선에서의 미제 침략자들의 야수적 만행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세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록영화]조국해방전쟁 제6부

<https://www.youtube.com/watch?v=N83YA6m7jiM>

불멸의 위훈

1951년 봄 전투는 3.8선 계선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맥아더의 20여개 사단들이 걸잡을 수 없이 녹아나게 되자 미제는 극도로 당황했습니다. 워싱턴의 두목들은 맥아더에게 더는 기대를 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맥아더는 파직 운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미국회에 불려간 맥아더는 이렇게 실토했습니다.《미국이 조선에서 승리를 얻으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참담한 손실을 보았다. 조선에서 흘리는 미국인들의 피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미제는 미국동사령관을 이번에는 그 어깨에 중무장을 한 포학한 매슈 리지웨이로 갈아대고 또 분별없이 날뛰어보았지만 전선에서는 연속 패전에 패전뿐이었습니다.

조선전쟁 1년동안에 막대한 병력을 잃고 헤어날수없는 멸망의 궁지에 빠지게 되자 리지웨이를 시켜 트루먼은 1951년 6월 30일 우리측에 정전 담판을 제의해 왔습니다.

그토록 오만무례하던 미제가 흰기를 들고 조선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인민들은 담판장에 기어든 미제 침략자들이 담판의 막뒤에서 새로운 침략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제 침략군 7개 사단을 비롯해서 무려 21개의 사단을 전 전선에 들이밀어 대규모적인 추기공세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얻어내는것, 바로 이것이 정전담판을 제의한 미제의 진짜 속셈이 었습니다.

적들은 모험적인 준비 공세가 마감고비에 이르자 정전담판을 일방적으로 파탄시키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미 8군 관할 13만여명의 대공격집단이 수백대의 탱크와 1000여대의 비행기를 몰고 전선 동부로 쓸어들었습니다.

조국의 고지 1211고지는 전쟁 제4계단의 분쇄령으로 높이 솟아 미제의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안겨줄 결사전을 준비하고 있 었습니다.

1211고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고지였습니다.

드디어 적들은 1951년 8월 18일 부터 모험적인 하기및 추기 공세를 감행해왔습니다. 전투는 오늘도 가열했지만 더 격렬한 싸움은 앞에 있 었습니다.

준엄했던 그날을 회상하여 주도일 상장은 말합니다. “1951년 여름은 바로 이런 시기에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께서는 포화속을 헤치시고 최전선에까지 나오셔서 적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가할 방침들을 지시하셨습니다 . 최고 사령관 명령을 받은 우리 지휘관들과 전사들...

감격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갯도에 의거한 견고한 방어진지에서 적들의 공격을 격파 분쇄함으로써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것이 당의 요구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1211고지 방위자들에게 생명보다 귀중한 신념으로 됐습니다. 전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항일선열들처럼 싸울것을 굳게 결의했습니다.

적들은 매일 4만여발의 폭탄과 포탄을 퍼부으며 악을 썼지만, 인민군부대의 갯도전에 넋을 잃을 뿐이었다. 적 땅크들이 짓어대기 시작할때면 우리전사들은 《양키놈들이 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사들은 날마다 시끄럽게 짓어대는 저 땅크를 아예 찾아가서 까부시기로 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미군의 모습.

1211기지 포병들은 직사포를 고지로 끌어올렸습니다.

포를 고지에 올려놓고 보병과 포병 협동으로 적을 때려 잡을데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전법은 1211고지를 끝까지 사수할수 있게 한 유력한 주체전법이 었습니다. 전투는 더 가열해졌습다.

불타는 고지의 전사들에게는 더 많은 총 포탄이 요구되 었습니다. 달리는 수송차를 따라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땅을 한치도 내놓지 말라는 당의 요구와 부모처자들의 절절한 념원이 전선으로 1211고지로 달렸습니다.

낮과 밤을 리용하여 벌어진 한달동안의 격전에서 1211고지의 방위자들은 13만 명의 적들을 소멸 격퇴하고 리치웨이의 야망을 짓부셔놓았습니다.

맥아더가 리치웨이에게 충고하기를 《당신들은 지금 100만의 병사들을 잃고 있는데 이제 1년이 더 걸리면 100만명 이상을 더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리치웨이는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고 미 8군 사령관 템프리트를 전선에 내몰아 패전한 사단장들의 목을 떼는 소동을 벌인 후에 또 다시 추기공세를 감행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에서 고지는 시간마다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1211 방위자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견고한 갯도병실에서 초가을 날씨에도 전사들이 감기들세라 심려하시는 수령님의 사랑에 목메이면서 혁명적량만에 넘쳐있 었습니다.

찾아든 한마리의 다람쥐에도 애정을 기울이는 병사들, 폭격에 부서진 박달나무에서도 노래를 찾아내어 화성악기 연주회를 여는 그들이 바로 우리의 노동당원들 우리의 전사들이 었습니다.

전사들은 갯도 병실이있 었기에 승리의 신심과 용맹을 키우고 혁명의 노래로 원수의 포성을 짓누르며 혈전의 언덕에서 영웅적 위헌을 떨쳐 갈 수 있 었습니다.

어깨우에 총창과 함께 조국의 운명을 떠맡 전사들 근위 강건 제 2보명사단 용사들에게 전투의 휴식참이 왔습니다. 이런때 전사들의 마음속에 어느듯 찾아오는 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내조국 내고향 생각이였습니다.

하늘의 계절새들은 철따라 찾아왔다가 떠나가지만 전사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하루도 한시도 떠나 살 수 없는 어머니의 품이였습니다.

혈전의 맹세는 가슴에도 바위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전사들은 한치의 조국땅을 위해서도 한목숨 기꺼이 바치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돌에 새긴글

조국과 인민을위하여 !

당과 경애하는 수령을 위하여

영웅의 고지 1211고지를 끝까지 사수하리라

부상을 당하고도 총을 잡고 있는 병사.

10월 하순에 들어서면서 적들은 더욱 발악했습니다.

고지는 포화속에 잠겼어도 인민들의 지원의 손길은 언제나 전사들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10월 하순에 들어서면서 적들은 있는 밀천을 다 틀어대며 발악했습니다.

1211고지, 이 령마루에 전쟁의 운명과 조국의 운명이 실려있었습니다.

전사들은 이것을 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1211고지로 악착하게 기어드는 적들을 소멸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돌격으로 나가는 결사대원들이 당과 수령님께 엄숙한 맹세를 드렸습니다.

아군의 돌격로를 가로 막는 적화점을 향고해 한치한치 전진하는 결사대원들.

금청강 가슌에 이름없는 고등학생이였던 19살의 이수복 분대장은 자기 수첩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생명도 귀중하다 .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 이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 것 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이수복 영웅은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었고 조국의 전진로를 열었습니다.

1211고지 방위자들, 보병들과 포병들 통신병들 그들은 모두가 조선로동당이 낳은 불굴의 영웅들이였습니다.

다시는 기어나올 수 없는 함정골에 빠진 미제 대아메리카가 총동원했던 수십만의 미제 침략군은 조선의 나지막한 언덕 하나도 넘어보지 못한채 추풍낙엽이 되어 역사의 오물장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1211고지의 이 방위자들의 승리의 노래와 춤은 미제 침략자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위력한 포화였습니다.

여기는 영국입니다. 몇달전 무공을 세우겠다고 조선 전선으로 떠나갔던 영국여단들이 이렇게 누워서 돌아왔습니다.

잘훈련된 미1해병사단은 조선에 갔다가 이런 모양으로 귀국했습니다. 최고도의 전투능력을 가지고 1211고지로 기어오르던 미2보병사단도 쌍지팽이를 짚고 투르맨을 찾아 왔습니다.

이런 꼴이나마 하고 미국본토로 돌아온 놈들은 미제가 조선에서 잃은 고용병들의 수자에 불과 몇 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놈들은 한장의 사망통지서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침략자는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을 떠날때 이 양키들이 다시 돌아가리라 생각했을것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우리 강토를 더럽히고 무고한 우리 부모처자들을 무참히 살육한 이 식인종무리들에게는 죽음만이 차례졌습니다.

아메리카가 캄캄한 어두움에 잠겨 멸망의 밤길을 헤메고 있을때 영웅의 나라 조선은 해쏜은 아침을 맞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화면은 1952년 봄날에 전선종군촬영가가 찍은 장면입니다. 체육경기.

최신형의 비행기와 저격무기와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중기관총으로 한달동안 적기를 10대나 쏘아떨군 김기호 리중영입니다. 비행기 사냥꾼조 활동은 세계 전쟁사에 없는 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실수 있는 주체의 전법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은 1952년 2월 모범비행기 사냥꾼조 대회에 참가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감회깊이 들려주고있습니다.

비행기 사냥꾼조 전투원들이 격퇴한 적기는 1952년까지만 해도 2970여대에 달했습니다.

미제가 조선전선에서 연속 패전하게 되자 백악관의 대통령 자리에는 악명높은 호전광인 아이젠하워가 새로 들어앉아 자기의 첫사업을 조선에 기여드는것 으로 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이젠 하워는 영국려단에까지 나타나 병졸들을 사열했습니다.

감람나무 향기보다 화약내가 더 좋다고 말한 아이젠하워는 전선을 돌아치면서 패전한 부대들을 수습했습니다.

이것은 마사진 자동차나 수리하는 가련한 처지에 빠지 영국여단입니다.

영국여단에 아이젠하워가 선발한 패잔병들이 보충되어왔습니다.

조선에서 방금 돌아온 아이젠하워가 1952년 12월 18일 어느 타자기회사에서 연명해가고 있던 패전장군 맥아더 까지 불러다 미국무장관 덜레스 개인집에서 조선전쟁 경험을 들어가면서 2시간 동안이나 새로운 흥계를 꾸였다. 음모의 소굴을 나오는 아이젠하워의 머리속에는 이미 이른바 신공세의 계획이 완성되어있 었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이들은 기자들에게 극동에서의 평화뿐아니라 세계의 평화에 대해 회담했다고 지껄였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대규모적인 신공세를 감행하기 위해 병력을 증강하면서 장개석 군대까지 끌어들일 모의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미제침략귀들을 환히 꿰뚫어 보고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선과 동서 량 해안을 철벽의 요새로 다짐으로써 적들의 신공세를 격파할때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강력한 아군연합부대들이 기본전선과 해안방어를 더욱 강화하기위해 신심의 승리에 넘쳐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명령을 심장으로 받들고 노동당원들을 선두로 전선과 후방은 한덩어리가 되어 미제의 최후발악적인 신공세를 짓부수기 위한 총결사전 준비에 일떠섰습니다.

모든 것을 전선으로, 마지막 피한방울까지 다 바쳐 조국을 수호하자!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 인민군부대들은 기본 전선에 철벽 방어전을 치고 서해안과 동해안연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면시켰습니다.

미제는 방대한 상륙무력을 들여밀어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상륙작전을 벌리려는 적들의신공세 앞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민군 해안포병들은 신공세를 기도하면서 홍천과 원산으로 기여들던 적함들에 명중포화를 퍼부 었습니다.

적들은 1953년 1월부터 4월 사이에만도 아군지상전선에 매일 600여대의 비행기를 출동시켜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하늘에서도 아이젠하워의 신공세의 기도는 산산히 부서져 곤두박쳤습니다. 공중에서도 해안에서도 녹아나자 적들은 지상전선에서 돌파구를 열어보려고 미 8군사령관 팀프리트의 지휘밑에 전선중부 정형고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적들은 이 전투가 모범전투가 될 것이라고 떠벌렸습니다. 아군은 적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안겼습니다.

미제의 이 《모범전투》도 저들이 초청해왔던 유엔군 종군기자들의 면전에서 참패국으로 끝남으로서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추종국가들까지도 미제에게 더는 고용병들을 섬겨 바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통신들은 떠들었습니다. 《신공세도 완전 파탄, 미대통령 아이젠하워가 곤경에 직면》 아이젠하워가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한번 숨쉴 기회를 보이려던 신공세는 시작도 못해보고 주저앉게 되었으니 물론 기분이 좋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길이 막막한 모양입니다. 보십시오.

동쪽을 바라 보아도 서쪽을 바라 보아도 대 아메리카가 나갈 길은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이젠 하워는 미8군사령관을 하나 새로 골라냈습니다. 테일러를 보내면서 아이젠하워는 조선전선에서의 참패를 수습해보려고 했습니다. 전쟁 2년 사이에 벌써 4번째로 갈아댄 미군사령관인 테일러가 남조선에 기여들었습니다. 워커는 이미 황천객이 되었고 리치웨이에 이어 팀프리트도 쫓겨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는 이른 시각에 전호속에 날아온 고향편지는 언제나 온 군대가 함께 보았습니다. (딸에게서 온 편지)

고향땅에서도 전쟁의 마지막 겨울은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적들의 이런 침공기도에 대처하여 월비산을 지키고 있던 인민군 부대는 351고지를 탈환하고 적들을 남쪽으로 몰아내기 위한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1953년 6월 2일 드디어 351고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군은 돌격을 개시하여 단 15분만에 고지를 단숨에 탈환했습니다. 가슴으로 적 화구를 막아 아군의 돌격로를 연 김인택영웅과 김룡택 영웅입니다.

아군의 강력한 반타격전이 개시되자 극도로 당황한 미제는 진창길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적들은 전선동부 301고지에 막대한 병력을 들이밀었습니다. 적들은 서울을 내주더라도 351고지는 내줄 수 없다고 지껄이면서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100여척의 군함들이 301고지의 적들을 지원했습니다.

351고지 포연속에 휘날리던 공화국 기발입니다.

이 기발을 지켜 불멸의 위훈을 떨쳐가던 그날의 351고지의 전사들,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이야기.. 그 얼마나 많겠습니까

조선전쟁에 불을 질렀던 미제의 운명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공화국을 삼키려던 흉악무도한 침략자 미제에게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미제에게 있어서 조선전쟁은 이른바 세계최강의 신화에 한계점으로 되었으며 내리막길의 시초로 되었습니다.

적살상 및 포로 1,567,128

비행기 로획 및 격추 격상 12,2244

땅크 로획 및 격파 3064

자동차 로획 및 격파 13,350

함선 격침 및 격파 564 척

각종 포로및 격파 7,695문

각종 저격무기 로획 925,152 정의 전과를 거두 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10시 미제 침략자들은 우리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 었습니다.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의 승리만세 !!!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국주의 강대성에 신화를 끝장내시고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 놓으신 강철의 령장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승의 광장에 나오셨습니다. 불길속을 헤쳐온 전사들은 어버이 수령님을 우러러 감격에 목메이며 수령님 만세를 부르고 또 부릅니다.

1953년 7월 27일 10시 미제 침략자들은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 었습니다.

[기록영화]조국해방전쟁 제1부

<https://www.youtube.com/watch?v=iDjA7lqk9SA>

[기록영화]조국해방전쟁 제2부

https://www.youtube.com/watch?v=jU81_yF6eEE

[기록영화] 조국해방전쟁 제3부

<https://www.youtube.com/watch?v=zv9xjApxDbg>

[기록영화] 조국해방전쟁 제4부

<https://www.youtube.com/watch?v=uTAb0EIWAno>

[기록영화] 조국해방전쟁 제5부

<https://www.youtube.com/watch?v=z1MOqIt-9Bc>

[기록영화]조국해방전쟁 제6부

<https://www.youtube.com/watch?v=N83YA6m7jiM>

[전체 목록으로 →](#)